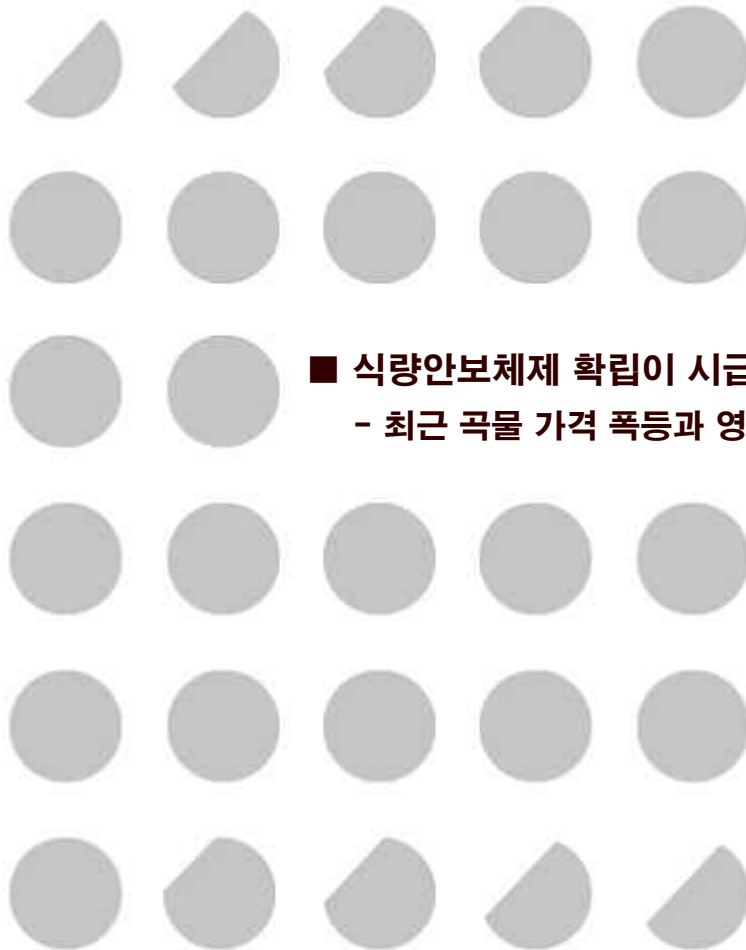




08-10 (통권 288호)

2008.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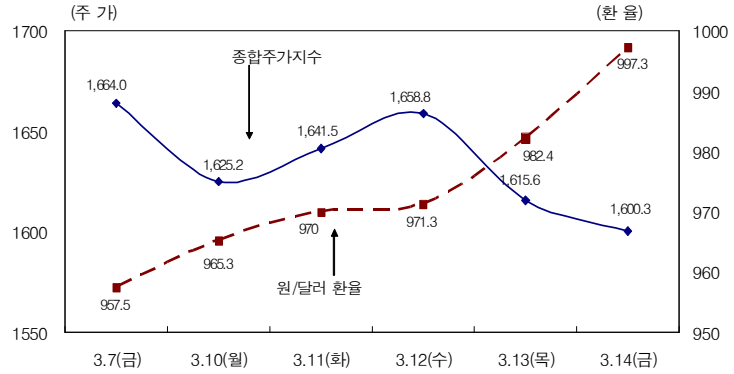
韓國經濟週評



■ 식량안보체제 확립이 시급하다.
- 최근 곡물 가격 폭등과 영향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3.7~3.14)



차 례

- 주요 경제 현안 1
 - 식량안보체제 확립이 시급하다.
 - 최근 곡물가격 폭등과 영향 1
- 주간 경제 동향 18
 - 실물 부문 : 생산자물가 상승폭 확대 18
 - 금융 부문 : 원화환율 급등세 지속 19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유 병 규 산업전략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동북아연구센터 : 이 부 형 연구 위 원 (3669-4011, lbh@hri.co.kr)

Executive Summary

□ 식량안보체제 확립이 시급하다 - 최근 곡물 가격 폭등과 영향 -

1. 폭등하고 있는 곡물 가격

2006년 하반기 이후 밀, 옥수수, 대두 등 주요 곡물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대두 가격은 2007년 12월 말 기준1 부셸 당 약8.9 달러에서3월 13일에는 14달러를 기록하여 1월 말 대비 약 57.3% 상승하였다. 옥수수도 동기간 14% 상승하였으며, 밀의 경우도 12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다.

2. 곡물 가격 폭등의 원인

이처럼 곡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원인은 개발도상국의 급성장, 환경 및 에너지 문제의 등장, 지구온난화에 의한 이상 기후 현상 심화, 곡물 시장에 대한 투기 자금 유입 가속, 자원민족주의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이 곡물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중국의 곡물 직접 수요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육류 소비를 통한 간접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전체 곡물 수요량으로 환산할 경우 1인당 하루 곡물 소비량은 1993년 대비 2007년에는 284.2그램이 증가하였다. 인도는 곡물에 대한 직접적인 수요 뿐 아니라 육류 소비를 통한 간접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인도의 곡물 수요량은 1993년 1인당 하루 412.9그램에서 2003년에는 435.5그램으로 약 5.5% 증가하였으며, 육류 소비 또한 1993년 1인당 하루 13.3그램에서 2003년에는 14.3그램으로 증가하였다.

둘째, 미국, EU 등 선진국들의 바이오연료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2007년 바이오에탄올 생산량은 2006년 대비 46.7% 증가한 71.2억 갤런 규모로 추정되며 2016년에는 2007년 대비 159.4% 증가한 약 126억 갤런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은 바이오연료 의무 사용량을 2007년 2%에서 2020년에는 20%까지 늘릴 계획이며 바이오연료 생산량 또한 2006년 47.6억 갤런에서 2016년에는 75.2억 갤런 약 58% 증가으로 확대될 것이다. 한편 EU의 경우, 바이오디젤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는 2006년 대비 33.4% 증가한 73.4억 갤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과 인도 또한 바이오에탄올 생산량을 확대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셋째, 잦은 이상 기후 현상의 발생도 곡물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다. 농작물을 포함해서 1990년대 이후 2005년까지 기상재해에 의한 연평균 총 피해액은 690.6억 달러로 1950년대의 48.1억 달러에 비해 14.4배 증가하였다. 더욱이 지구온난화가 진행될 경우 세계의 농업 GDP는 1990년 대비 2020년에는 1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개발도상국은 20%, 선진국은 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밀, 옥수수, 콩 등 주요 곡물시장으로의 투기 자금 유입 규모 증가 또한 곡물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시카고상품거래소 밀 선물 거래의 경우 2007년 6월 5일 순매입(1만 4,071건)으로 전환된 이후 순매입세가 지속되고 있다. 옥수수도 마찬가지로 선물 순매입 건수가 2006년 1월 3일 4만 2,186 건에서 2008년 3월 4일에는 37만 6,392건으로 급증하였다. 대두는 2006년 10월 17일 이후 순매입으로 전환되었으며

2008년 3월 4일에는 12만 6,981건으로 2006년 10월 17일 대비 11.5배 증가하였다.

다섯째, 자원민족주의가 확산되면서 곡물 공급의 악화를 유발하여 곡물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 중국은 밀, 쌀, 옥수수에 대해 수출 쿼터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최고 25%의 수출 관세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러시아는 2008년 4월 30일까지 주변국에 대한 밀 금수 조치를 취했으며, 밀 수출 관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 아르헨티나 등 주요 곡물 수출 국가들 또한 곡물 수출 쿼터제를 도입하거나 수출 관세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01~2006년 평균 대비 2016~17년에는 조곡류(coarse grains), 밀, 채유종실(oilseeds), 쌀의 톤당 가격은 각각 34%, 20.5%, 13%, 37%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3. 곡물 가격 상승의 영향

곡물 가격 상승은 국내적으로는 물가 상승 및 식량 수급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며 북한의 식량난을 악화시킬 것이다. 세계적으로는 세계적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세계 식량난을 초래하고 세계 지역 간 갈등 같은 정치경제적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첫째, 곡물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국내 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식인 쌀을 제외한 보리, 밀, 콩, 옥수수의 자급률이 2006년 기준 각각 46.5%, 0.2%, 0.8%, 13.6%에 불과한 한국의 식량 수급 구조에 비춰볼 때 세계 곡물 가격의 상승은 그대로 국내 경제에 반영될 것이다. 즉 곡물 가격 상승에 의한 수입 물가 상승은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생활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 위축을 야기, 내수 부진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둘째, 곡물 가격의 상승은 국내 식량수급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다. 2005년 기준 주요 곡물의 소비량과 생산량과의 차이는 쌀 22.5만 톤, 콩 128.1만 톤, 밀 337.6만 톤, 옥수수 881.8만 톤이다. 더욱이 2006년 기준 옥수수의 국내 식부(植付) 면적은 1990년 2만 5,987ha 대비 47.4%가 감소한 1만 3,661ha이며, 콩의 국내 식부면적은 동기간 15만 2,265ha에서 9만 248ha로 약 40.7%가 감소하였다. 밀의 식부면적은 거의 0ha에 가깝다. 따라서 곡물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많고 주요 곡물에 대한 국내 식부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곡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이는 국내 식량수급의 불안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곡물 가격 급등은 북한의 식량난을 더욱 부채질하고 탈북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1990년대에 들어 식량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탈북현상이 급속히 늘어났다.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 자료에 따르면 중국 거주 탈북자 수는 2003년 기준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가장 심각했을 때에는 20만 명 수준에 달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탈북자의 국내 입국자 수는 2007년 5월 현재 1만 705명에 달한다. 만약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북한의 식량 수급이 더욱 불안정해질 경우, 북한 주민들의 이탈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 경우 탈북자에 대한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넷째, 곡물 가격 상승은 식품가격 인상을 통해 세계적인 물가 상승을 초래하여 세계 경기의 둔화를 유발하게 된다. 중국의 경우 2007년 6월 식품에 대한 소비자가격 지수가 133.9까지 상승하였는데 이는 2005년 1월에 비해 21.5p나 상승한 수준이다. 인도 또한 2007년 10월 식품에 대한 소비자가격지수가 142.1 까지 상승하였는데 이는 2005년 1월에 비해 30.6p나 오른 수치이다. 식품에 대한 소비자가격지수 상승은 개발도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는데, 2005년 1월 대비 2007년 12월 소비자가격지수 상승 폭은 적게는 6.1p, 많게는 10.5까지 상승하였다. 한국 또한 동기간 6.3p 상승하였다.

다섯째, 곡물 가격 상승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세계 기아 확산, 난민 증가, 국지적인 정치 또는 무력 충돌 등 정세 불안을 불러올 수 있다. 국제 곡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식량 수급에 큰 애로가 발생하여 최빈국들을 중심으로 기아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아가 확산될 경우 기아지수 (Hunger Index)가 경고 수준 등에 이른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들의 난민이 증가하여 인접 국가 간 정치적 갈등이 증대할 것이다. 더욱이 자원국가들의 자원민족주의가 심화될 경우에 국지적인 세계 분쟁이 증가할 우려도 증대된다.

4. 대응 방안

최근의 곡물 가격 상승이 공급 부족에서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볼 때 단기적인 대응책보다는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식량 안전보장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식량자립도를 높여야 한다. 미국 농림부는 1999년 '식량안보 행동계획'을 수립, 경제 안보와 연결시켜 식량 안전보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농림수산성이 '식량·농업·농촌기본계획 하에 '2세기 신농정 2006'을 수립, 국가 차원의 식량 안전보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 중심의 단순 시장원리에서 벗어나 식량 안전보장 관점에서 국가적인 전략 틀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둘째, 선물시장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동경곡물상품거래소에 서 곡물 선물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선물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 국내에도 농산물 선물거래시장을 도입함으로써 농산물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내 농업의 국제화 추진이 필요하다. 만주, 연해주 등 주변국 미개발 영토에 대한 플랜테이션 협력 강화를 통해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 세계 각지의 대규모 플랜테이션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곡물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 확대 뿐 아니라 투자 수익 또한 창출할 수 있는 농업 자본의 형성이 필요하다.

넷째, 농업분야에 대한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 북한의 농업 근대화 촉진을 지원하는 한편 북한의 농경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통해 북한과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북한 사회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 최근 곡물 가격 폭등과 영향 >

주요 곡물 가격 급등	
곡물 가격 급등 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 : 2008년 3월 13일 가격은 1부셸 당 2007년 1월말 대비 57.3% 상승 - 옥수수 : 동 14% 상승, - 대두 : 12달러대의 고수준 유지

곡물 가격 급등의 원인		
수요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과 인도의 식량 소비 증가 - 육류 소비 확대를 통한 곡물 간접 소비 증가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에탄올 생산 증가 : 미국, 브라질 중심 - 바이오디젤 생산 증가 : EU 중심
	곡물시장에의 투기자금 유입 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카고상품거래소 주요 곡물 선물 상품 순매입세 지속
공급	이상기후 현상의 다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온난화로 인한 곡물 생산량 감소
	자원민족주의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물에 대한 수출 쿼터제, 수출 관세 부과

곡물 가격 상승의 영향		
국내	국내 물가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 소비자, 생활 물가의 상승 야기 - 내수 부진에 의한 경기 악화
	국내 식량수급 불안 가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곡물 소비량과 생산량과의 격차 존재 - 국내 주요 곡물 식수면적 감소
	북한 식량난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북 기아 난민의 주변국 유입 확대 - 북한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동북아 분쟁 발생 가능성 증대
세계	세계적인 물가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에 대한 소비자가격지수의 세계적 상승
	세계 식량 분쟁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아 확산, 난민 증가 - 자원민족주의로 국지적인 무력 충돌 발발

대응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 안전보장에 대한 의식 전환과 식량 자급도 제고 - 농산물 선물시장의 적극적인 활용 또는 선물시장 도입 - 국내 농업의 국제화 추진 - 농업분야에 대한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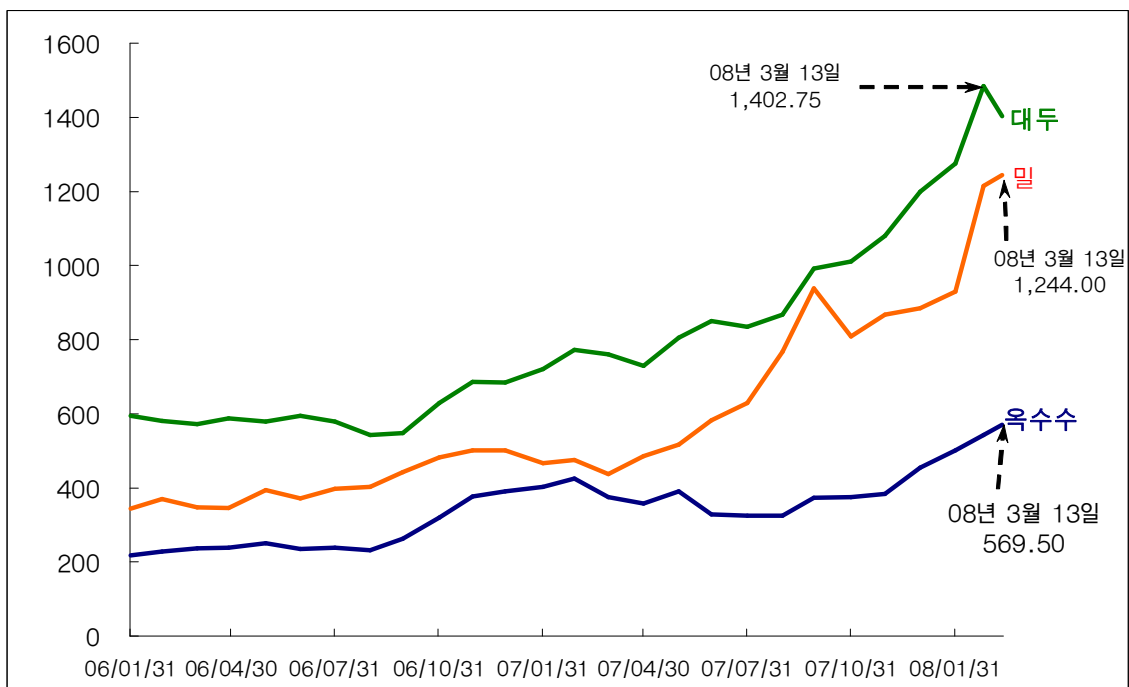
1. 폭등하고 있는 곡물 가격

○ (주요 곡물 가격의 급등) 2006년 하반기 이후 밀, 옥수수, 대두 등 주요 곡물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

- 대두 : 2007년 12월 말 기준 1부셸 당 약 8.9달러였던 대두 가격이 3월 13일에는 1월 말 대비 약 57.3% 상승한 14달러까지 급등
- 옥수수 : 2008년 1월 말 기준 1부셸 당 약 5달러였던 옥수수 가격이 3월 13일에는 1월 말 대비 약 14% 상승한 5.7달러까지 상승
- 밀 : 2008년 1월 말 기준 1부셸 당 약 12.7달러였던 밀 가격이 3월 13일에는 12.4달러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 주요 곡물 가격 변동 추이 >

(센트/부셸)



자료 :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주 : 1부셸(bushel)은 소맥, 대두는 27.2kg, 옥수수는 25.4kg임(미국 기준).

2. 곡물 가격 폭등의 원인

○ (곡물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과거의 곡물 가격 폭등 현상이 악천후나 지역 분쟁 등 일시적인 불안정 요인에 의한 것이었다면, 최근의 곡물 가격 급등 현상은 구조적 요인에 기인

- 개발도상국의 급성장,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 지구온난화에 의한 이상 기후 다발, 곡물시장으로의 투기 자금 유입 가속, 자원민족주의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

○ (개발도상국의 성장) 중국, 인도 등의 거대 개발도상국들의 성장에 따르는 곡물 수요 증가가 곡물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중국 곡물 간접 수요 증가 : 경제성장에 따르는 소득 증가로 곡물의 직접적인 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육류 소비를 통한 간접 곡물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

· 곡물의 직접 수요 감소 : 중국의 경우, 곡물의 직접적인 수요는 1993년 1인당 하루 555.3그램에서 2003년 432.8그램으로 122.5그램 감소

· 육류 소비를 통한 간접 수요 급증 : 육류 소비는 1993년 1인당 하루 91.9그램에서 2003년에는 150그램으로 58.1그램이나 증가하였으며, 이를 곡물 수요로 환산하면 1993년 대비 406.7그램 증가한 것이 됨¹⁾

· 전체 곡물 수요 증가 : 결국 1993년 대비 2003년 중국의 곡물 수요 증가는 1인당 하루 284.2그램임

- 인도 : 곡물에 대한 직접적인 수요 뿐 아니라 육류 수요를 통한 간접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음

· 곡물 수요 증가 : 인도의 곡물 수요량은 1993년 1인당 하루 412.9그램에서 2003년에는 435.5그램으로 약 5.5% 증가

· 육류 소비를 통한 간접 수요 증가 : 육류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1993년 1인당 하루 13.3그램에서 2003년에는 14.3그램으로 증가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1kg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옥수수의 양은 각각 4kg, 7kg, 11kg으로 본고에서는 돼지고기 생산을 기준으로 산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월간 세계농업뉴스」, 제41호, 2004년 1월.

< 중국과 인도의 주요 식품 소비 추이 >

(그램/1일/1인)

구분	중국			인도		
	GDP 성장률(%)	곡물 수요	육류 수요	GDP 성장률(%)	곡물 수요	육류 수요
1993년	14.0	555.3	91.9	5.0	412.9	13.3
1994년	13.1	538.4	100.5	6.8	430.9	13.1
1995년	10.9	532.2	107.3	7.6	452.5	13.1
1996년	10.0	541.8	105.9	7.5	451.8	13.3
1997년	9.3	535.5	120.0	4.9	441.8	12.7
1998년	7.8	525.9	128.8	5.9	414.3	13.0
1999년	7.6	516.2	131.5	6.9	423.8	13.2
2000년	8.4	497.2	137.2	5.4	419.4	13.5
2001년	8.3	479.5	139.7	3.9	418.8	14.0
2002년	9.1	452.9	143.8	4.5	430.9	14.1
2003년	10.0	432.8	150.0	6.9	435.5	14.3

자료 : IMF,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 화석에너지 사용에 따르는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EU 등 선진국들의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로 곡물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 주요 곡물들의 가격이 상승

- 대체 에너지로서 바이오연료 급부상 : 바이오연료는 휘발유와 경유 등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로 급부상
 - 휘발유 대체 바이오 에탄올 : 옥수수, 밀 등의 녹말작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휘발유를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
 - 경유 대체 바이오 디젤 : 대두, 해바라기, 유채 등과 같이 식물성 기름을 추출, 바이오 디젤에너지로 활용함으로써 화석연료인 경유를 대체
- 세계 각국의 바이오 연료 생산 증가 : 미국, 브라질, 인도, EU, 인도 등 세계 각국의 바이오 연료 생산이 증가

< 세계 각국의 바이오 에탄올 생산 현황과 전망 >

(백만 갤런)

구 분	미국	브라질	중국	EU	인도
2006년	4,856	4,763	1,083	864	486
2007년	7,123	4,977	1,090	905	485
2008년	9,792	5,153	1,108	972	498
2009년	11,501	5,386	1,125	1,031	507
2010년	12,207	5,652	1,135	1,094	513
2011년	12,323	5,922	1,146	1,157	520
2012년	12,290	6,201	1,157	1,218	528
2013년	12,269	6,495	1,170	1,278	536
2014년	12,315	6,812	1,183	1,338	547
2015년	12,436	7,153	1,198	1,398	557
2016년	12,595	7,524	1,214	1,458	569

자료 : FAPRI(Food and Agricultural Policy Research Institute), *FAPRI Agricultural Outlook 2007*, 2007.

- **미국** : 2006년 대비 2007년 바이오 에탄올 생산량은 46.7% 증가한 71.2억 갤런 규모로 예상되며, 2016년에는 2007년 대비 159.4% 증가하여 약 126억 갤런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브라질** : 브라질의 경우 바이오 연료 의무 사용량을 2007년 2%에서 2020년에는 20%까지 높일 계획이며, 이로 인해 바이오 연료 생산량 또한 2006년 47.6억 갤런에서 2016년에는 약 58% 증가한 75.2억 갤런에 달할 전망
- **EU의 바이오 디젤 생산 증가** : 미국의 경우 바이오 디젤 생산은 당분간 지속되다 2010년부터 감소세로 전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EU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는 2006년 대비 33.4% 증가한 73.4억 갤런에 달할 전망
- **기타** : 중국, EU, 인도도 점진적으로 바이오 에탄올 생산을 증가시키고 있음

< 미국과 EU의 바이오 디젤 생산 현황과 전망 >

(백만 갤런)

구분	2006년	2007년	2009년	2010년	2013년	2016년
미국	385	541	578	565	511	449
EU	5,504	6,157	6,526	6,558	6,797	7,3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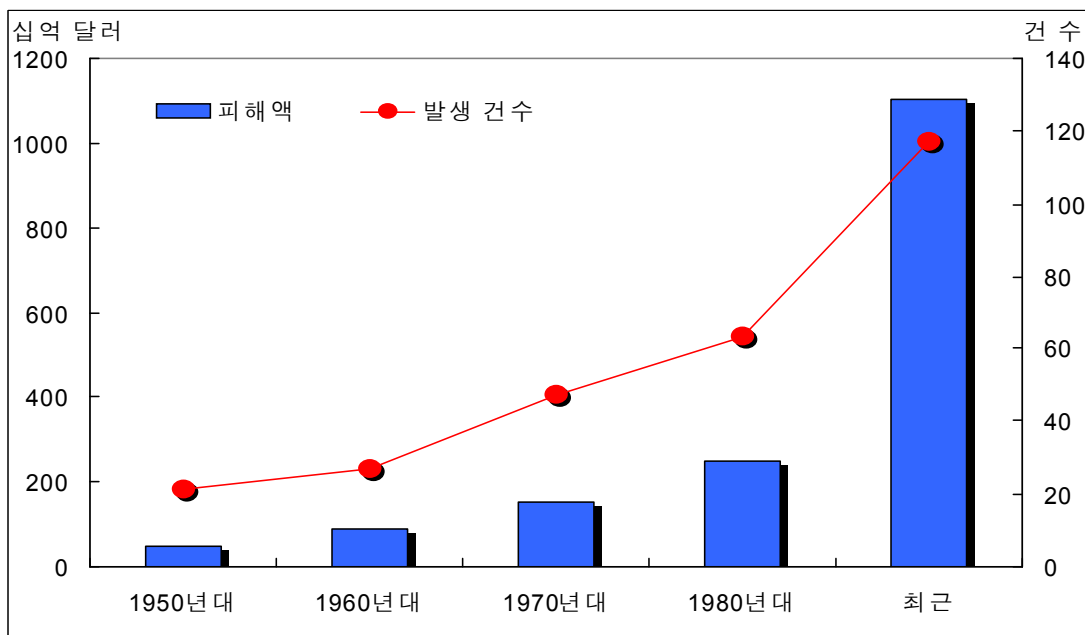
자료 : FAPRI(Food and Agricultural Policy Research Institute), *FAPRI Agricultural Outlook 2007*, 2007.

주 : 바이오 디젤은 대두, 해바라기, 유채 등과 같이 식물성 기름을 추출하여 바이오 연료로 사용함으로써 화석연료인 경유를 대체.

○ (지구온난화로 인한 잦은 이상 기후 발생) 지구온난화의 진행에 따르는 잦은 이상 기후 발생으로 작황이 악화되면서 공급이 둔화

- 이상 기후 발생에 의한 피해 증가 : 지구온난화는 호우, 가뭄, 열대저기압, 혹서 등의 이상 기후 발생 빈도를 높여 사회 전반에 걸친 피해 뿐 아니라 작물 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사회 전반에 걸친 피해 증가 : 호우, 가뭄, 열대대기압, 혹서 등으로 인한 사회 전반에 걸친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실제 1990년대 이후 2005년까지 기상재해로 인한 농산물 등의 연평균 피해액은 690.6억 달러로 1950년대의 48.1억 달러에 비해 14.4배 증가하였음

< 기상재해 발생 건수 및 피해액 >



자료 : Munich Re, *Topics Geo Annual Review : Natural catastrophes 2005*.

- 온난화로 인한 작물 생산성 하락 : Cline(2007)의 연구에 의하면 지구온난화가 진행될 경우 세계 농업 GDP는 1990년 대비 2020년에 16%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개발도상국은 20%, 선진국은 6%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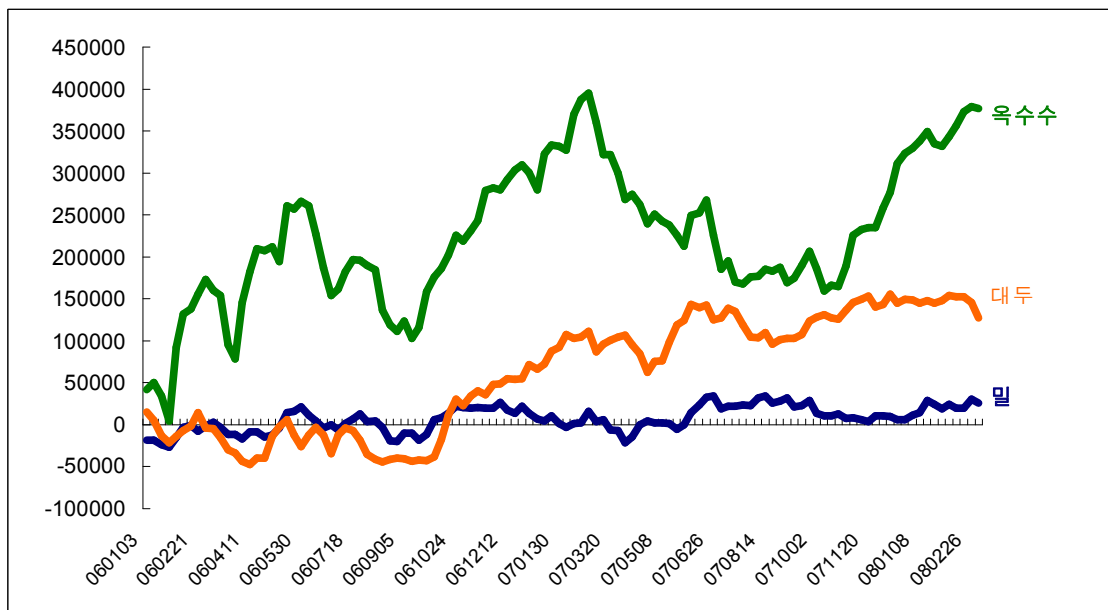
2) Cline, W. R., *Global Warming and Agriculture: Impact estimates by Country*, Washington, D.C.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and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7.

○ (곡물시장으로의 투기 자금 유입 가속) 밀, 옥수수, 콩 등 주요 곡물시장으로의 투기 자금 유입 규모 증가 또한 곡물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밀 : 시카고상품거래소 밀 선물 거래의 경우 2007년 6월 5일 순매입(1만 4,071건)으로 전환된 이후 순매입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008년 3월 4일에는 2만 5,769건을 기록
- 옥수수 : 시카고상품거래소 옥수수 선물 순매입 건수는 2006년 1월 3일 4만 2,186건에서 2007년 1월 2일 18만 5,942건, 2008년 3월 4일에는 37만 6,392건으로 급증하였음
- 대두 : 시카고상품거래소 대두 선물 거래의 경우 2006년 10월 17일 순매입(1만 1,027건)으로 전환된 이후 순매입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008년 3월 4일에는 12만 6,981건으로 2006년 10월 17일 대비 11.5배 증가

< 주요 곡물 선물 시장 자금 순유입 추이 >

(전 계약 건수)



자료 : CFTC(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 (자원민족주의 확산)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식량 수출 국가들 뿐 아니라 중국과 같은 식량 소비 대국들도 식량 수출을 제한하는 등 식량에 대한 자원민족주의가 확산되고 있음

- 중국 : 중국은 2007년 말 밀, 쌀, 옥수수에 대해 수출 쿼터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최고 25%의 수출 관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
- 러시아 : 러시아는 밀에 대한 수출 관세를 40%까지 인상하는 안과 더불어 2008년 4월 30일까지 주변국에 대한 밀 수출을 금지
-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 :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은 밀, 콩, 옥수수에 대해 수출 쿼터제를 도입. 단 카자흐스탄은 2008년 3월에 도입할 것으로 전망
- 아르헨티나 : 아르헨티나는 밀 수출량을 40만 톤 이하로 규제하는 수출 쿼터제를 2008년 2월에 도입

< 최근 세계 주요 곡물 수출국들의 식량 수출 규제 동향 >

구 분	대 상	방 법	비 고
중 국	밀, 쌀, 옥수수	- 수출 쿼터제 - 수출 관세 제도 도입 (최고 25%)	- 2007년 84개 수출 곡물 대상 환급 세제 혜택 폐지
러 시 아	밀	- 수출 관세 인상	- 2008년 4월 30일까지 주변국에 대한 밀 금수 조치
우크라이나	밀, 옥수수, 콩	- 수출 쿼터제 도입	- 2007년 11월
카자흐스탄	밀, 옥수수, 콩	- 수출 쿼터제 도입 - 수출 관세 도입	- 2008년 3월 예정
아르헨티나	밀	- 수출 쿼터제 도입 (밀 수출 40만 톤 이하)	- 2008년 2월

자료 : 국내외 언론 보도 자료.

○ (세계 곡물가격 지속 상승 전망) OECD & FAO(2007)에 의하면 향후 세계 곡물가격은 2001~06년 평균 가격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

- 밀 : 2001~06년 평균 톤당 152달러였던 밀 가격은 2016/2017년에는 183.2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쌀 : 2001~06년 평균 톤당 238.4달러였던 쌀 가격은 2016/2017년에는 326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채유종실 : 2001~06년 평균 톤당 266달러였던 채유종실 가격은 2016/2017년에는 299.6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조곡물 : 2001~06년 평균 톤당 103.6달러였던 조곡물 가격은 2016/2017년에는 138.2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세계 곡물가격 전망 >

(달러/톤)

구분	2001~06년 평균	2009/2010년	2016/2017년
밀	152.0	191.8	183.2
쌀	238.4	347.8	326.0
채유종실 (oilseeds)	266.0	306.5	299.6
조곡류 (Coarse Grains)	103.6	147.1	138.2

자료 : OECD & FAO, *Agricultural Outlook 2007~2016*, Paris, 2007.

3. 곡물 가격 상승의 영향

○ (국내에 대한 영향) 곡물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은 물가 상승, 식량 수급 악화 등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특히 북한의 식량난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

- 국내 경제에 심각한 타격 : 곡물 가격 급등 현상의 지속은 국내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식량안전보장의 문제가 심각해질 것임
- 낮은 식량 자급률 : 주식인 쌀을 제외한 보리, 밀, 콩, 옥수수의 자급률이 2006년 기준 각각 46.5%, 0.2%, 0.8%, 13.6%에 불과한 실정으로 세계 곡물 가격의 급변동 영향이 국내에 그대로 반영되는 구조임
- 국내 물가 상승에 의한 소비 위축 : 곡물가격 급등에 의한 수입 물가 상승은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생활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 위축을 야기, 내수 부진에 의한 경제성장을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주요 곡물 자급률 추이 >

(%)

구분	쌀	보리	밀	옥수수	콩
2002년	99.2	60.4	0.2	0.7	7.3
2006년	95.3	46.5	0.2	0.8	13.6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주요 물가 지표 상승률 추이 >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07							2008
	1/4	2/4	3/4	4/4			1월	
				10월	11월	12월		
수입물가	1.5	2.8	1.5	12.2	7.5	13.7	15.6	21.2
생산자물가	1.8	2.5	2.0	4.3	3.4	4.4	5.1	5.9
소비자물가	2.1	2.4	2.3	3.3	3.0	3.5	3.6	3.9
생활 물가	2.3	3.0	2.8	4.5	3.9	4.9	4.8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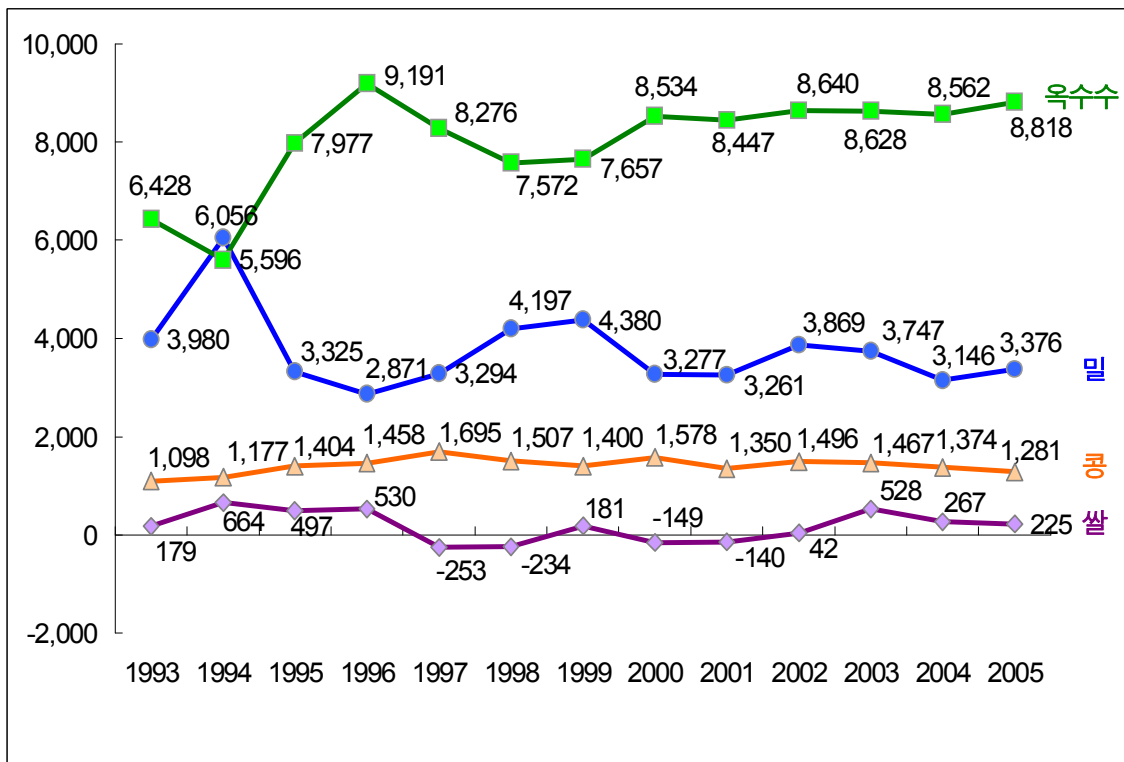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주 : 수입물가는 원화 기준임.

- **식량 수급 악화** : 곡물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많고 주요 곡물에 대한 국내 식부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곡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이는 국내 식량수급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식부(植付)면적의 감소** : 2006년 기준 옥수수의 국내 식부(植付)면적은 1990년 2만 5,987ha 대비 47.4%가 감소한 1만 3,661ha이며, 콩의 국내 식부면적은 동기간 15만 2,265ha에서 9만 248ha로 약 40.7%가 감소하였으며, 밀의 식부면적은 거의 0ha에 가까움
- **주요 곡물의 소비량과 생산량 격차 존재** : 2005년 기준 주요 곡물의 소비량과 생산량의 차이는 쌀 22.5만 톤, 콩 128.1만 톤, 밀 337.6만 톤, 옥수수 881.8만 톤임

< 주요 곡물 수요량과 생산량의 격차 >

(단위 : 천 톤)



자료 : 농림수산부.

- **북한 식량난 심화** : 곡물 가격의 급등은 북한의 식량난을 더욱 부채질 할 것이며, 이로 인한 북한 주민의 이탈 증가는 북한의 개방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동북아 정세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난민 확산** :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UHCR;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자료에 의하면 중국 거주 탈북자 수는 2003년 기준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가장 심각했을 때에는 20만 명 수준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³⁾
- **국내 유입 급증** : 탈북자의 한국 입국자 수를 보면 1989년 607명에서 2001년 1,043명, 2006년 2,019명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탈북자의 총 한국 입국자 수는 2007년 5월 현재 1만 705명에 달함
- **동북아 정세 불안정** : 식량난에 의한 북한 주민의 중국, 한국 등 주변국으로의 이탈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분쟁의 원인을 제공하며, 이는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음

< 북한의 기아지수 변화 >

구 분	1981년	1992년	1997년	2003년
기아지수	19.35	15.51	20.91	20.33

자료 : Doris Wisemann, '2006 Global Hunger Index-A Basic for Cross-Country comparisons', IFPRI(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2007.

<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입국자 현황 >

구 분	1989년	2001년	2006년	2007년 5월 현재 총계
기아지수	607명	1,043명	2,019명	10,705명

자료 : 통일교육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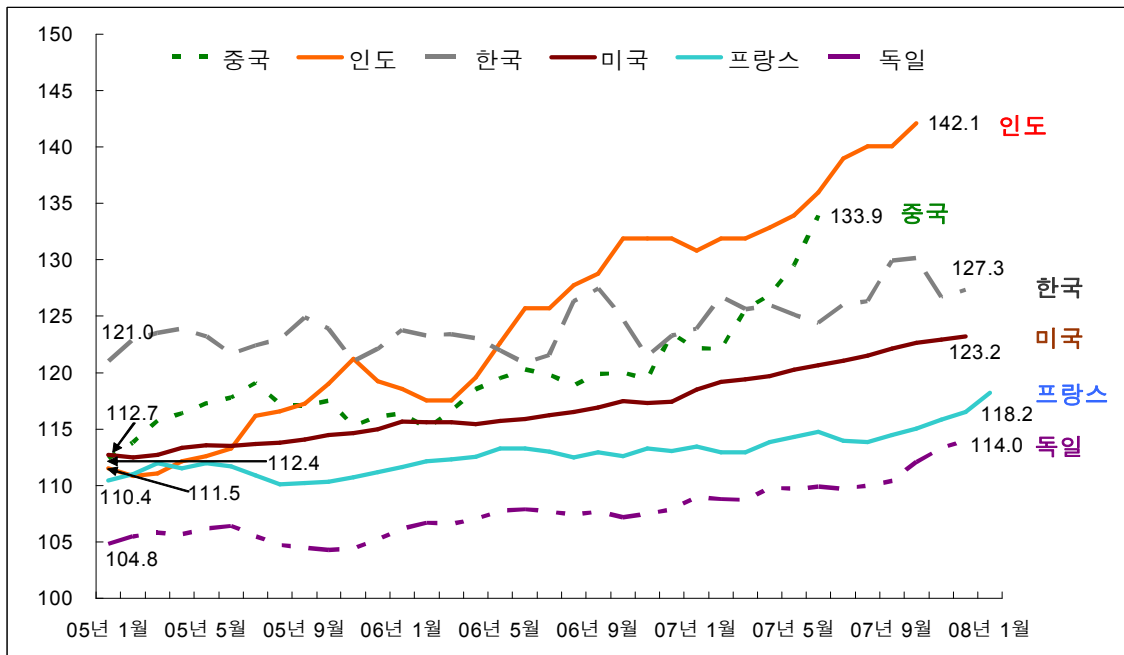
3) International Crisis Group, "Perilous Journeys-The Plight of North Koreans in China and Beyond", *Asia Report*, No. 122, Oct. 2006; James D. Seymour, "China: Background Paper on the Situation of North Koreans in China", commissioned by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Protection Information Section, *Writenet*. Jan. 2005 참조.

○ (세계에 대한 영향) 곡물 가격 상승은 식품가격 인상을 통해 세계적인 물가 상승을 불러오므로써 세계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개발도상국들의 식량안보를 위협할 것임

- **신흥 개도국 식품 소비자가격지수 급상승** : 중국, 인도 등 경제 급성장을 거듭하면서 식량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의 식품 소비자가격지수가 급상승
 - **중국** : 2007년 6월 식품에 대한 소비자가격지수가 133.9까지 상승하였는데 이는 2005년 1월에 비해 21.5p나 상승한 수치임
 - **인도** : 2007년 10월 식품에 대한 소비자가격지수가 142.1까지 상승, 이는 2005년 1월에 비해 30.6p나 상승한 수준임
- **선진국 식품 소비자가격지수의 완만한 상승** :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에서의 식품에 대한 소비자가격지수 또한 2005년 1월 대비 2007년 12월에 적게는 6.1p, 많게는 10.5p까지 상승
- **한국도 동일 기간 동안 상승** : 한국의 식품에 대한 소비자가격지수는 2005년 1월 121.0에서 2007년 12월 127.3으로 6.3p 상승

< 세계 주요국들의 식품 소비자가격지수 추이 >

(2000년=100)



자료 :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

- **세계 식량안보 위협** : 공급 부족에 의한 곡물 가격 급등 현상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세계 식량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아 확산, 난민 증가, 국지적인 정치 또는 무력 충돌이 발발할 수 있음⁴⁾
- **기아 확산** : 기아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성장속도가 낮기 때문인데 경제성장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국가들의 경우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한다면 식량 수급에 큰 애로가 발생하여 기아가 더욱 확산될 것임
- **난민 증가로 인한 국지적인 정치 또는 무력 충돌 발발** : 기아가 확산될 경우 아프리카 지역과 아시아와 같이 경고 수준 또는 심각한 수준의 기아 상태에 있는 국가들에 있어서의 난민 증가로 국지적인 정치 또는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기아를 더욱 확산시킬 것임

4. 대응 방안

- (식량 안전보장에 대한 의식 전환) 식량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생각하는 단순한 시장원리에서 벗어나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한 국가적인 전략 틀을 마련하고 식량 자급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선진국들 식량 안전보장 강화** : 선진국들의 경우 식량 안전보장을 위한 국가적인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는 등 식량에 대한 국가 안전보장 차원의 접근이 강화되고 있음
 - **미국** : 미국 농림부의 경우 1999년에 식량안보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경제안보와 연결시켜 식량 안전보장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일본** : 일본 농림수산성은 ‘식량·농업·농촌기본계획(2005년 각의 결정)’ 하에 ‘21세기 신농정 2006’을 통해 국가적인 식량 안전보장 전략을 추진 중임
- (선물시장의 적극적인 활용) 해외 선물시장은 물론 국내에도 농산물 선물시장을 도입, 농산물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 수단을 확보해야 함
- **일본 사례** : 일본은 동경곡물상품거래소에서 곡물 선물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선물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음

4) 참고자료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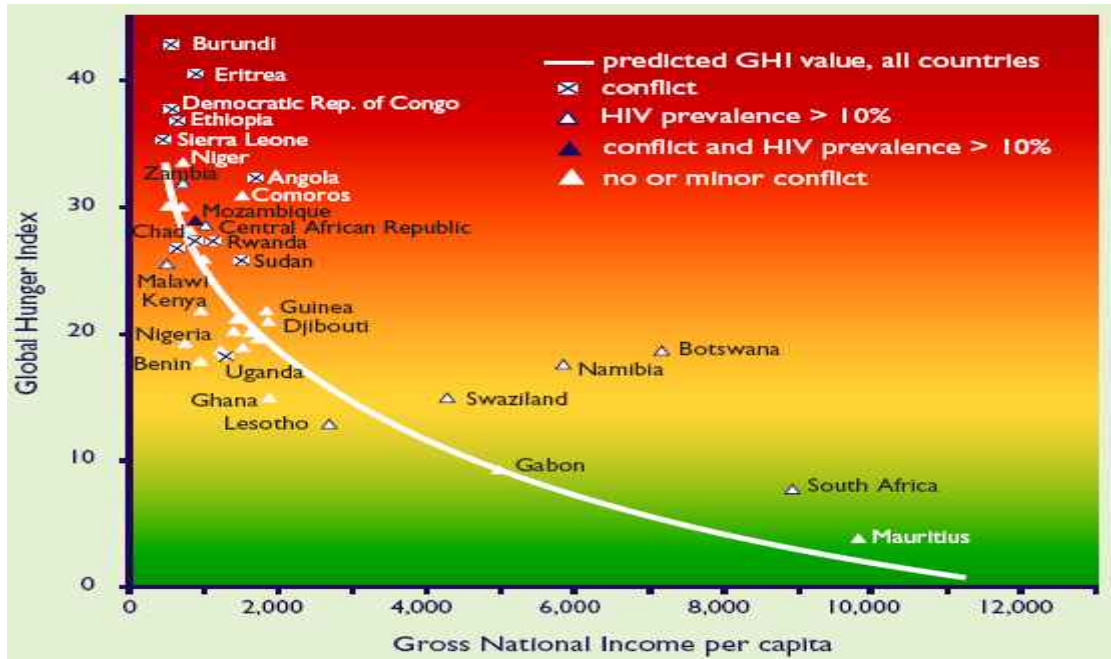
- (국내 농업의 국제화 추진) 만주, 연해주 등 주변국 영토에 대한 대규모 플랜테이션 개발 전략 추진, 세계 각지의 대규모 플랜테이션에 대한 투자 확대 등 국내 농업의 국제화를 추진해야 할 것임
 - 주변국 영토에 대한 대규모 플랜테이션 개발 : 만주, 연해주 등 주변국 미개발 영토에 대한 플랜테이션 협력 강화를 통해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세계 각지의 대규모 플랜테이션에 대한 투자 확대 : 콩, 옥수수 등을 재배하는 세계 각지의 대규모 플랜테이션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곡물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 확대 뿐 아니라 투자 수익 또한 창출할 필요가 있음
- (농업분야에 대한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 북한의 농업 근대화 촉진을 지원하는 한편 북한의 농경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통해 대북 관계의 지속적인 개선을 꾀하고 북한의 식량안보는 물론 국내 식량안보도 강화해야 함
 - 북한 농업 근대화 촉진 지원 : 북한의 경우 농업생산기반이 취약할 뿐 아니라 농업의 근대화 미진으로 생산성이 낮아 장기 식량난을 경험하고 있어, 북한 농업 근대화 촉진을 위한 지원을 통해 북한의 식량 자립도를 높임으로써 중장기적인 대북 지원 부담을 경감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식량 부족 현상의 원인 : 북한의 식량 부족 현상은 제한된 농경지 면적, 투입요소의 부족, 반복적인 기상재해, 농업기술의 저위, 농업관리 방식의 비효율성 등 농업생산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임⁵⁾

이부형 연구위원(☎ 3669-4011, lbh@hr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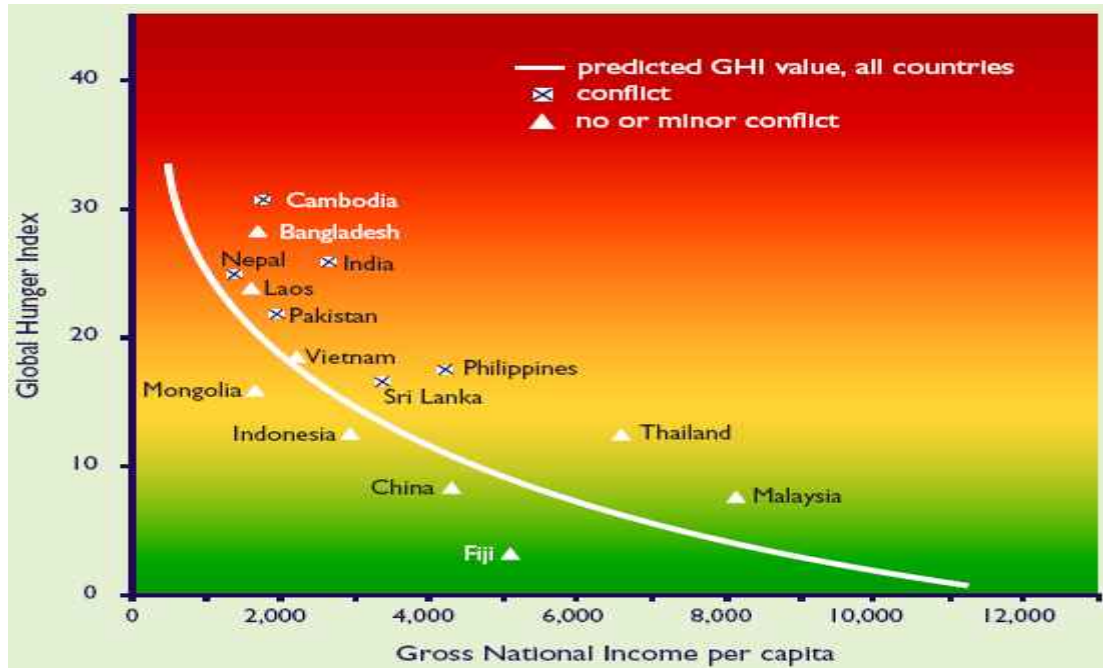
5) 권태진·김형훈·지인배, '남북한 농업개발협력 추진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년.

< 참고 : 1인당 GNI와 기아지수와 의 상관관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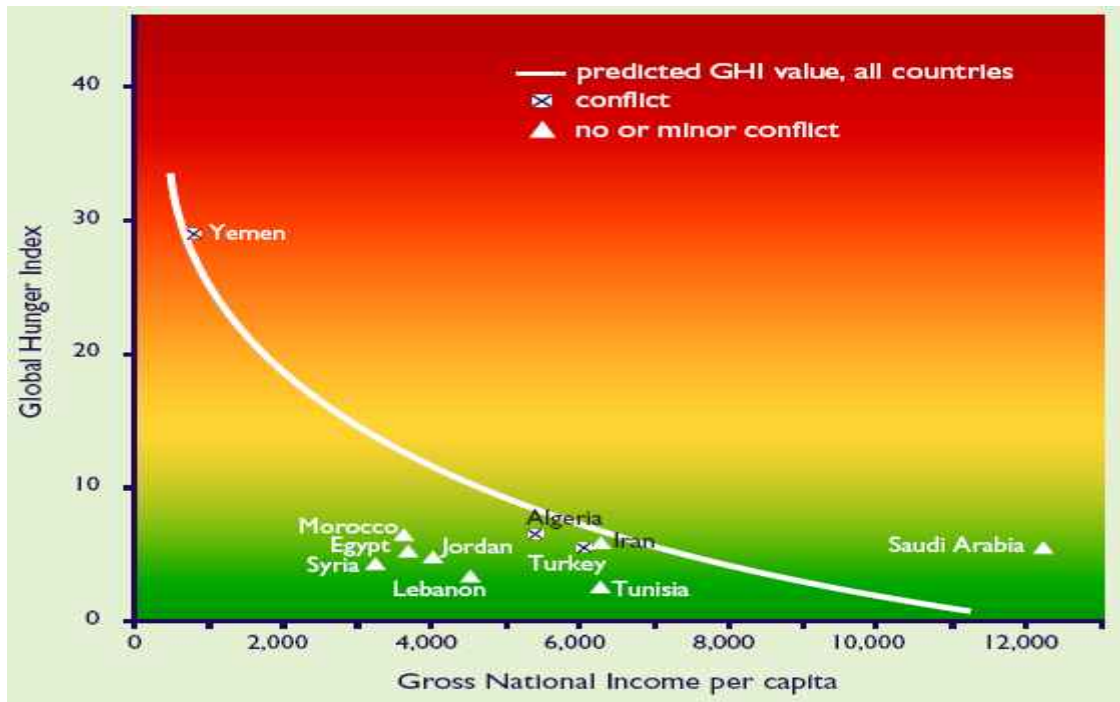
아프리카 : 사하라사막 남쪽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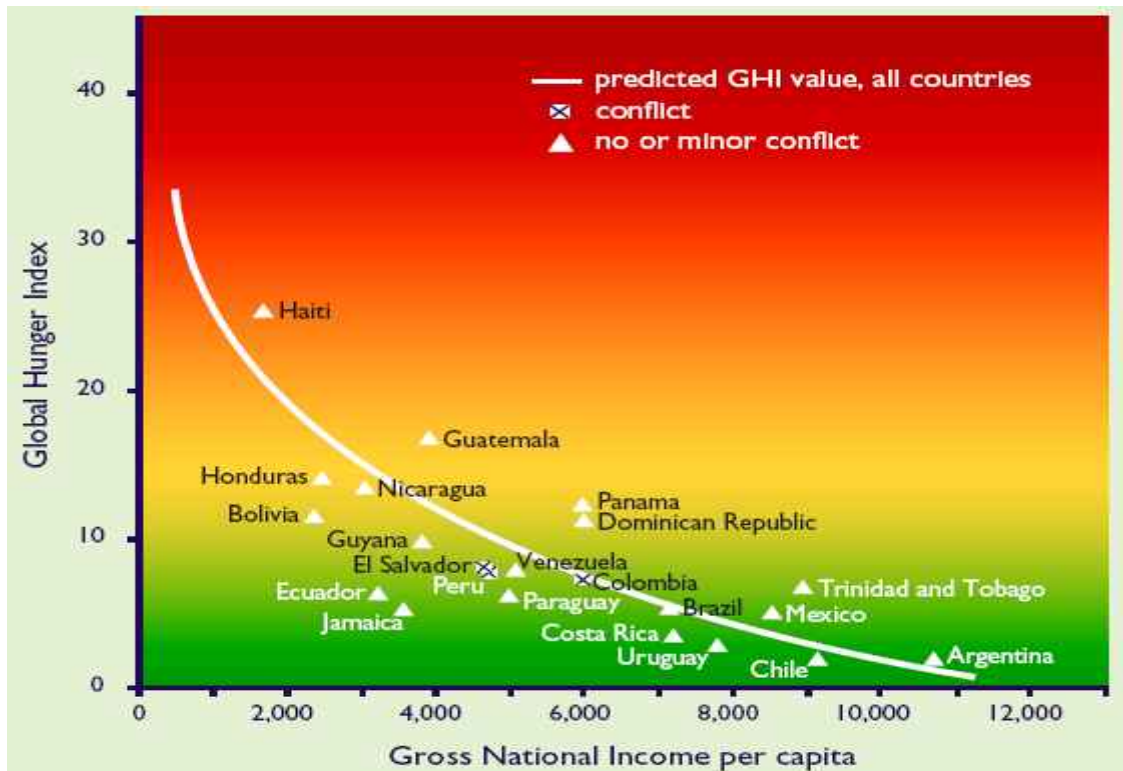
동남아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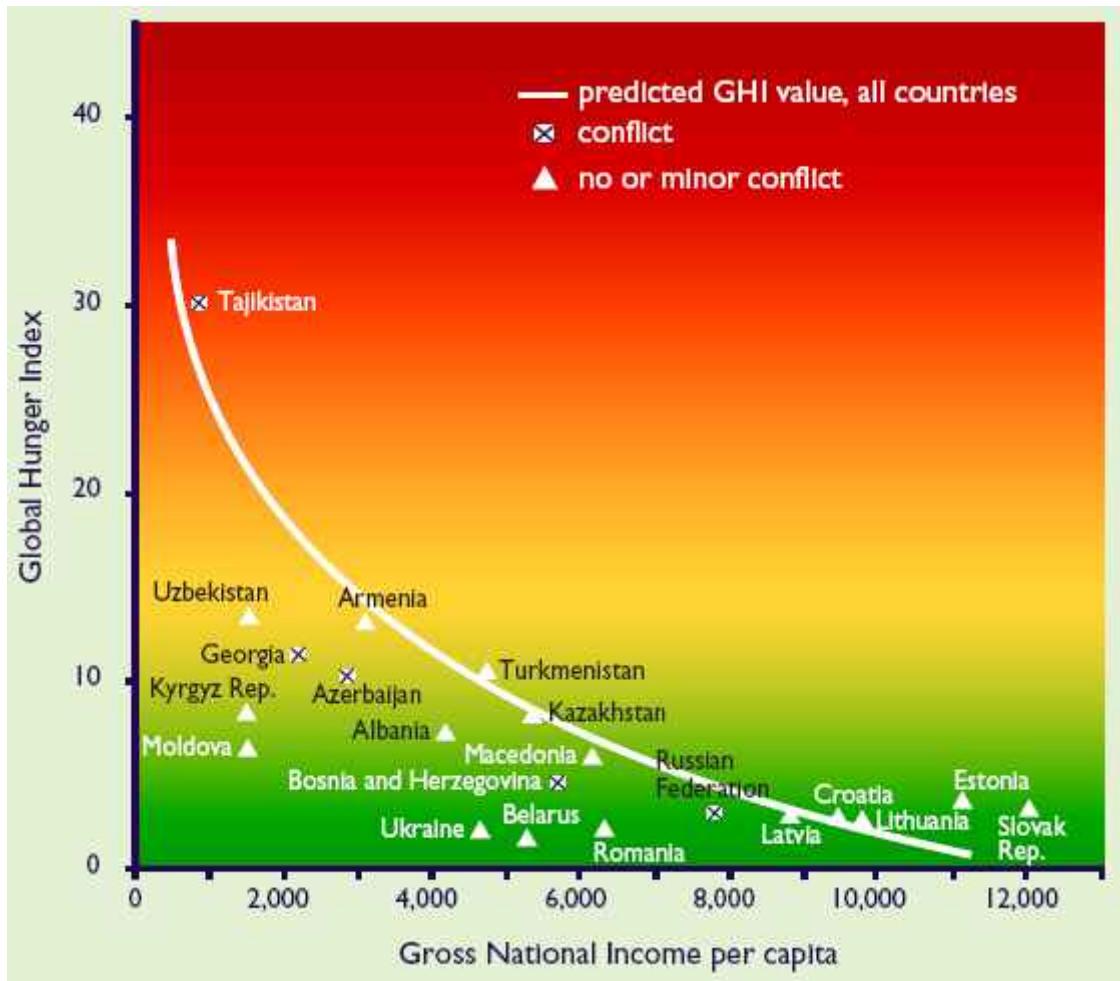
극동아시아 및 북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캐리비언해협 국가



동유럽 및 舊소련 독립국가



자료 : 이상 Doris Wisemann, '2006 Global Hunger Index-A Basic for Cross-Country comparisons', IFPRI(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2007.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생산자물가 상승폭 확대

○ 2월 생산자물가는 농림수산물 가격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산품 가격이 오른 데다 서비스 요금이 올라 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 6.8% 상승하여 상승폭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농림수산물은 설 이후의 수요부진 및 기온상승에 따른 출하증가로 채소류, 과실류, 축산물 등이 내린 반면, 재고 및 공급 감소로 곡물류, 선어 및 조개류 등이 올랐으나 농림수산물 전체로는 전월대비 0.9% 상승에 그침
- 공산품은 달러화 약세에 따른 국제투기자본의 원자재 시장 유입으로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데에 따른 영향으로 음식료품 및 담배, 화학제품, 금속1차제품 등이 올라 전월대비 1.6% 상승하였음
- 향후에도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자물가 상승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소비자물가도 시차를 두고 그동안의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6		2007					2008		
		연간	4/4	연간	1/4	2/4	3/4	4/4	1월	2월	
경기	수요	경제성장률	5.0	4.0(0.9)	4.9	4.0(0.9)	5.0(1.8)	5.2(1.3)	5.5(1.5)	-	-
		소비재판매	4.1	3.0	5.3	5.7	4.2	7.1	4.5	4.7	-
		설비투자추계	8.9	6.4	8.6	12.8	11.9	0.7	9.2	-0.9	-
		건설수주	9.0	27.1	19.3	26.3	26.3	-5.6	29.5	-13.1	-
		수출	14.4	13.8	14.1	14.6	14.1	9.4	18.2	17.0	20.2
	공급	광공업생산	8.3	4.6	6.8	4.0	6.2	6.0	11.0	11.8	-
		취업자수 (만명)	2,315	2,330	2,343	2,284	2,370	2,361	2,358	2,296	2,288
		실업률 (%)	3.5	3.2	3.2	3.6	3.2	3.1	3.0	3.3	3.5
		수입	18.4	13.0	15.3	13.4	14.7	7.3	25.9	31.5	27.3
		대외 거래	경상수지 (억\$)	54	61	60	-17	0.3	44	32	-26
무역수지 (억\$)	161		75	146	24	50	45	27	-37	-8	
물가	소비자물가	2.2	2.2	2.5	2.1	2.4	2.3	3.3	3.9	3.6	
	생산자물가	2.3	2.0	2.7	1.8	2.5	2.0	4.3	5.9	6.8	
	생산재물가	4.8	1.8	4.7	2.1	3.3	2.5	11.1	17.3	-	
	최종재물가	0.5	0.4	1.1	0.3	1.1	0.6	2.5	3.6	-	

주 : 경제성장률의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임.

□ 금융 동향 : 원화 환율 급등세 지속

○ (해외 금융 시장) 글로벌 달러화 약세 지속

- **금리**: 미 연방은행의 2,000억 달러에 달하는 긴급 유동성 공급계획 발표로 급등세를 보이다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면서 하락세로 반전하여 전주말 대비 보합 시현 (국채 10년물 : 3.53→ 3.53%)
- **환율**: 미국 경기침체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심리적 분위가 확산되면서 달러화는 유로화 및 엔화에 대해 초약세 시현 (\$/€ : 1.5356→1.5635, ¥/\$: 102.7→100.5)

○ (국내 금융 시장) 주가급락, 원화환율 급등세 지속

- **주가**: 미국 경기침체가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형성 되면서 투자심리가 급속도로 악화되어 글로벌 증시 침체에 따른 영향으로 전주말 대비 대폭 하락 (1,663.9→ 1,600.3)
- **금리**: 금리 인하 가능성 약화에 따른 방향성 거래에 투자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차익실현 매물 출회 및 국채선물을 대규모 순매도 등에 따른 영향으로 전주말 대비 대폭 상승(국고채 3년 수익률, 5.00→ 5.29%)
- **환율**: 미국 신용경색 재발 가능성으로 유동성 확보를 위한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가 급증하는 가운데 역외거래자의 차액결제 선물환 매수세 및 수입업체의 결제 수요 등이 가세하면서 전주말 대비 급등 (957.5→ 997.3)

○ (전망) 원화 환율의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전망

< 주요 금융 지표 >

		2006		2007				2008	
		3/4	4/4	1/4	2/4	3/4	4/4	3.7	3.14 ¹⁾
국내	거래소 주가	1,371.4	1,434.5	1,452.5	1,743.6	1,946.5	1,897.1	1,663.9	1,600.3
	국고채3년(%)	4.57	4.92	4.76	5.26	5.46	5.74	5.00	5.29
	원/달러	946.2	929.8	940.9	923.8	915.1	936.1	957.5	997.3
해외	DOW	11,679	12,463	12,354	13,409	13,896	13,265	12,266	12,040
	Nikkei	16,128	17,226	17,288	18,138	16,786	15,308	13,603	13,215
	미국채10년(%)	4.63	4.70	4.57	5.02	4.59	4.02	3.53	3.53
	일본채10년(%)	1.68	1.69	1.60	1.88	1.69	1.51	1.36	1.29
	달러/유로	1.2674	1.3199	1.3354	1.3542	1.4267	1.4593	1.5356	1.5635
	엔/달러	118.18	119.07	117.83	123.18	114.80	111.65	102.67	100.50
	두바이(\$/배럴)	57.33	56.71	63.12	66.42	76.64	89.06	96.26	99.03

주 : 1) 해외지표는 전일(3.13) 기준

내 인생 최고의 멘토를 만나다!

Creative business contents tank, Usociety

21세기는 지식 경쟁력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트렌드, 나만 뒤쳐지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비즈니스맨들의 창조력 충전 및 경쟁력 확대를 위한 지식 정보 콘텐츠,
 Usociety에서 만나보세요.

비즈니스 지식 정보 TV, CreativeTV.co.kr

창조의 5분, 성공의 5분! 그 5분을 위한 다이제스트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Usociety의 미션입니다.
 HD VIDEO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과 지혜를 나누십시오.



글로벌 비즈니스의 완성, EBS 어학 프로그램

최고의 어학 강의, EBS 어학 콘텐츠! 국내 대표 강사진들의 명 강의로 구성된 3,200편 이상의 풍부한 어학 프로그램을 Usociety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Business	Conversation	Global
영어인터뷰 START 인터뷰 영어족보 비즈니스영어 모질게 new TOEIC 비겁한 new TOEIC 外	Style English Survival English 영어 말하기 START Oxford 회화 말미잘 English 外	리듬 중국어 입문 이키이키 일본어 러시아어 첫걸음 스페인어 첫걸음 터키어 첫걸음 外

차별화된 경쟁력, Competency Tools

지식노트

경제, 사회, 문화에서 저널까지 한 눈에 보는 weekly webzine

U-Times

지식 트렌드를 손에 잡을 수 있는 콘텐츠 매거진

U-Planner

프로페셔널리즘의 시작, 웹 프랭클린 플래너

eBook

비즈니스에서 교양까지, 신간으로만 채워지는 digital library